

진도군,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서 농수특산품 홍보

울금·구기자·미역 등 20여종 홍보 부스 운영

배추·무 등 김장용 채소·쌈채소 모종 심기도

진도군이 '2022 국회 생생텃밭' 개장식에서 보배섬 진도 농수특산품 홍보를 실시했다.

지난 1일 오후 국회 헌정회 인근 생생텃밭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울금, 구기자, 미역 등 농수특산품 20여종을 홍보 하는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국회 생생텃밭모임(회장 김진표 국회의원) 주최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아시아종묘 후원으로 열린 행사에 진도군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초청 기관·단체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배추, 무 등 김장용 채소와 쌈채소 모종 심기 등의 행사로 열렸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여·야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협 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도시농업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국회 생생텃밭은 지난 2015년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세균 전 총리가 중심이 되어 헌정회 인근 잔디를 걷어내고 땅을 골라서 텃밭을 만들었으며, 여·야 상생, 국민화합, 도·농 소통을 통한 상생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비전으로 만들었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군, 산업단지 풀베기 및 환경정비 작업 실시

강진군이 추석을 맞아 강진산업단지, 칠량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및 가로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풀베기 및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강진산업단지 구간 65만 5267㎡에 걸쳐 공원 및 보도블럭 틈새로 우거진 잡초 등 평소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 풀베기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쓰레기 수거 및 배수로 정비, 산업단지 사면 보수 등을 통해 입주기업들과 산업단지 주변 주민들에게 깨끗한 산업단지 경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칠량농공단지 도로변, 경계부지, 소공원, 농특산물 판매장 주변 풀베기와 환경정비를 실시해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쾌적한 고향 풍경을 느끼게 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산업단지와 칠량농공단지 주변 풀베기 및 환경정비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특산품 사가기 운동을 전개해 강진 고향사랑이 퍼져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해남군, 저탄소 쌀 50톤 메타버스 탄다

탄소감축 플랫폼 '뽕스카본' 연계

해남군은 눈물관리기술로 재배된 저탄소 쌀 50톤을 스타트업 기업과 연계해 판매한다.

군은 탄소감축 플랫폼 개발 업체인 뽕스카본과 연계해 9월부터 네이버 메타버스(제페토)를 통해 계곡면에서 생산된 저탄소 쌀 50톤을 제공한다.

뽕스카본은 중개 서비스를 통해 탄소 감축 프로젝트 발의나 후원이 자유로운 플랫폼이다. 이번 해남쌀 판매는 BC카드가 후원해 이뤄졌으며, 참여자들이 메타버스내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저탄소 쌀을 리워드(보상) 해주게 된다.

이번에 제공되는 쌀은 비료, 농약과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로 재배되어 환경부 저탄소 인증을 받은 해남쌀이다.

쌀 포장재 또한 환경을 고려한 종이포장지를 사용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저탄소 쌀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남군은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저탄소 벼 눈물관리 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 농업을 활용한 벼 재배 기술 개발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승은호 코란도그룹 회장, 제7회 장보고한상 어워드 대상 선정

국회의장상 이숙진·문체부장관상 최경주 등 6명 선정

(사)장보고글로벌재단과 완도군은 1일 '제7회 장보고한상 어워드' 심사위원회의를 열고 대상 수상자로 승은호(80) 코란도그룹 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상은 이숙진(67) 제마이힐딩스 회장, 문화체육부 장관상은 최경주(52) KJ재단 이사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이마태오(54) KMT그룹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김경욱(53) 갈텍스인터내셔널 회장, 해양수산부 장관상에 장재중(70) 유니그룹 회장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 수상한 승은호 코란도 그룹 회장은 지난 1969년 인도네시아로 이주해 53년 만에 대규모 조립을 조성하고 원목 개발과 합판, 제지, 티슈 공장 등을 건립해 목재 가공 사업의 수직 계열화를 구축했다.

또 바이오가스와 소수력 등 에너지발전 사업, 금융 및 물류, 부동산 등 30개 계열사를 보유한 코란도 그룹을 경영하며 종업원 수 2만 명, 매출 10억 달러를 달성하는 중견 그룹

으로 성장시켰다.

승 회장은 1998년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초대 회장을 맡아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경험 등을 공유했으며 2003년에 아시아 한상연합회를 설립, 15년간 회장을 맡아 한민족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섰다.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이숙진 제마이힐딩스 회장은 지난 1979년 호주로 이주, 부친 이재경 회장이 설립한 상업용 청소 용역 회사인 제마이법인 설립에 참여했으며, 현재 호주, 뉴질랜드 전역에 560개 사업장을 두고



있다.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한 최경주 KJ재단 이사장은 지난 1999년도에 미국으로 이주, PGA 투어 8승을 거뒀으며 50살 이상만 출전하는 미국 프로 골프(PGA) 챔피언스 투어에서도 한국 선수 최초로 우승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골퍼로 성장했다.

그는 지난 2007년 비영리 민간단체인 최경주재단을 설립해 골프 꿈나무 315명과 장학 꿈나무 417명에게 총 396억 원을 후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군, '눈높이 소통' 직무역량 강화교육 실시

전 직원 대상 직무교육...보고서 작성법 등 업무 노하우 전해

장흥군은 지난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군정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조석훈 장흥군 부군수가 직접 강사로 나섰다.

조 부군수는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보고서 작성법 등 업무 노하우를 전했다.

교육 후에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어려움과 고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과 격의없는 소통·공감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직급별(6급, 7급, 8·9급)로 나눠 세 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

1회차에서는 6급(팀장급)을 대상으로 조직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주문하는 한편,

2024년 국도비 확보 대응방안 등 현안업무에 대해 논의했다.

2회차 교육에서는 핵심 실무자인 7급과 부서 서무를 대상으로 기획보고서 작성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3회차 교육에서는 장흥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8·9급을 대상으로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행정실무를 중점적으로 교육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업무 노하우 등 여러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으며, 특히 교육을 계기로 그동안 개인별로 달랐던 행정서식 등을 일원화하게 되어 업무효율이 높아질 것 같다"며 교육소감을 전했다.

조석훈 부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



의 기획능력이 신장되어 장흥군 정책 품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조직의 비전과 가치를 반영한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군은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을 핵심 키

워드로 지속적인 직무 교육을 통해 직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민선8기 장흥군의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장흥=김도영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